

#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Care Farming)을 중심으로

이 윤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1. 들어가며

최근 국내에서는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특히 농업과 농촌의 “생산과 공간”이라는 기능의 다양한 형태로 치유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농촌체험을 통한 정서 함양 및 휴양 등의 기능을 넘어 농촌체험과 농업활동을 통한 “치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 등 외국에서는 사회적 농업이 여러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하에 정착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농업을 치유농업(Care Farming)<sup>1)</sup>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치유농업의 선두주자로 1970년대부터 치유농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치유농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국가이다. 본고에서는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하

\* (yjlee4011@krei.re.kr).

1) 치유농업은 “돌봄 농업”이라고도 불리며 농장과 농업 경관을 매개로 한 영농활동을 통해 신체·정신 건강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함(Sempik et al. 2010; 김경미 외 2013).

고 있는 추세이다. 치유농업을 녹색 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sup>2)</sup>, 건강을 위한 영농(Farming for Health)<sup>3)</sup>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치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을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유럽의 치유농업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별로 치유농업의 개념, 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농산업분야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치유농업이란 농장 및 농촌경관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지적 장애인, 약물중독자, 사회 부적응자 등 의학적·사회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목적의 농업활동이기도 하다. 치유농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목적에 따라 치유중심형, 고용중심형, 교육중심형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치유농업의 유형

구분	치유 중심	고용 중심	교육 중심
목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훈련 제공 및 고용과 노동시장의 연계	정규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 충족
대상	의학적,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정규학교 학생, 학습장애 및 사회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특징	건강 관련 기관, 복지기관, 농업 관련 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정 지원 및 보상	노동 관련 기관으로부터 일부 지원, 농업생산 위주의 운영수입(농장주)	농업활동이나 농촌경관에 대한 경험 제공

자료: 김경미 외(2013).

치유중심의 경우,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유농장(Care Farms)이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유형은 전문적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하지만 노동시장과의 연계 혹은 고용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치유농장,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치료농장(Therapeutic Farms)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고용 중심의 경우, 노동시장과의 연계와 고용이 주요 목적이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치유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근교도시 통합정원, 슬로베니아의

2) 녹색치유농업은 자연을 활용하여 건강, 사회통합, 교육 등을 창출하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회적·치료적 원에, 치유농업, 생태치료(eco-therapy), 야생치료, 동물매개치료(animal assisted intervention) 등이 포함됨(Sempik et al. 2010).  
 3) 건강을 위한 영농은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치유 분야와 농가나 농업인의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농업체제가 결합된 형태의 영농체제를 의미함(Dessein 2008).

사회적 기업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교육 중심형의 치유농업은 정규 학교 학생들에게 농업활동이나 농촌 경관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농장과 학습장애, 사회적 조치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농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여러 유럽국가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치유농업을 제공하고 있다(김경미 외 2013).

또한 치유농업은 농업생산과 치유의 2가지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생산 측면에서는 치유농업을 통해 작물 재배, 원예, 가축축산, 산림경영 등 다양한 농업활동이 제공되기도 하며, 치유 측면에서는 건강 치유, 사회적 재활, 교육활동 등이 제공된다. 생산 중심과 치유 중심의 치유농업은 영역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데, 농업 생산중심인 경우 농장에서 농장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치유 중심의 경우에는 외부기관이나 전문적인 치료사를 통해서 농업과 치유 활동이 이루어진다. 치유 중심의 치유농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이 참여하기도 한다(김경미 외 2013).

표 2 치유중심형 치유농업 참여 기관

구 분	참여기관
건강치유	1차 보건의료기관, 사회서비스기관, 정신건강기관, 약물/알콜 치료기관, 기타 건강관련 기관
사회적 재활	약물/알콜 재활기관, 보호감찰기관, 청년재활기관, 기타 사회적 재활기관, 난민구제기관
교육	정규학교, 지역아동교육기관, 기타 교육기관

자료: 김경미 외(2013).

## 2. 네덜란드의 치유농업

### 2.1. 네덜란드 치유농업의 배경

먼저 네덜란드의 농업은 20세기에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식량부족을 겪은 네덜란드의 농업정책은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의 '생산' 기능과 농촌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식량과 영양분의 생산이 농업의 중심적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다른 기능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생산량 위주의

생산이 아닌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고 생태학·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많은 농민들이 이전까지 추진되었던 생산량 위주의 농업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농업이 주는 자연적인 경관, 자연 보전, 에너지 생산 그리고 휴식 등 사회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이후부터 자연 경관과 영농활동을 매개로 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도시와 인접해 있는 지역의 경우, 치유와 교육 그리고 자연경관을 통한 휴식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도시와의 인접성으로 인하여 다른 농촌지역들보다 치유농업을 더 빨리 도입할 수 있었다.

또한 1960년대부터 네덜란드에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환자와 치매 노인에 대한 돌봄 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녹색치유”가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치매노인의 경우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가 목적이 아닌 매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치유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Elings and Hassink 2006: 164-165).

## 2.2. 네덜란드 치유농업의 현황

### 2.2.1. 네덜란드 치유농장의 수

네덜란드의 치유농업 관련 조직인 국가지원센터(National Support Centre)에 따르면 1995년, 치유농장 수는 40개에 불과하였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949년 이후 1년에 한 개의 치유농장이 늘어난 셈이다(Hassink *et al.* 2014). 1995년 이후 네덜란드의 치유농장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1998년에 치유농장의 수는 75개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그 수가 839개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사용자 수는 만 명으로 나타났다(Di Iacoovo and O'Connor 2009). 1998년과 2001년 사이에는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에 비해 2002년에서부터 2004년 사이에는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였다<표 3 참조>.

표 3 연도별 네덜란드 치유농장의 수

연도	1998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2009
치유농장 수	75	214	323	372	432	591	720	839

자료: Hassink *et al.* 2007; Di Iacoovo and O'Connor 2009.

네덜란드의 치유농장은 국가 전체에 걸쳐 골고루 퍼져있지는 않다. 치유농장의 경우, 네덜란드의 중앙과 동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헬데를란트(Gelderland) 주(州)<sup>4)</sup>에 가장 많은 수의 치유농장이 있다. 네덜란드 중앙과 동부 지역에 있는 치유농장의 경우, 규모가 더 크며, 지역에 전문성이 있는 치유기관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 보다 더 전문적인 치유농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Elings and Hassink 2006).

### 2.2.2. 네덜란드 치유농업의 대상자

1990년대에는 치유농업의 대상자가 주로 지적장애자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환자였으나, 노인, 약물/알콜 중독자,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환자, 자폐아 등으로 치유농업의 대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한 많은 치유농장에서 대상자(target group)의 유형을 늘리고자 하고 있다(Elings and Hassink 2006). 이러한 경우 치유농장 측면에서는 재정적인 이점이 있다. 이용자측면에서는 치유농업활동을 통하여 이용자 간 서로 다른 장애와 어려움에 대하여 이해하며,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치유농업의 대상자 중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적 장애, 심리적 장애, 치매노인, 자폐아, 약물/알코올 중독자, 수감자,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정치적 망명자,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 등으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치료의 목적이 아닌 예방의 목적으로 치유농업이 제공되고 있어 그 대상자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Hassink *et al.* 2014). 젠더측면에서 보면 다수의 이용자는 남성이며, 여성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sup>5)</sup>

표 4 연도별/대상별 네덜란드 치유농장 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적 장애가 있는 환자	73	70	67	63	66	51	53
정신적 장애	32	36	39	40	45	38	39
청소년	11	14	22	23	27	28	32
노인	10	10	11	13	18	21	24

자료: Hassink *et al.* 2014.

4) 헬데를란트 주는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동쪽으로 위치한 주로 국가의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주임. 2015년 현재 총 헬데를란트 주의 인구는 2,206,578명이며 네덜란드 전체 주(총 12개)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음.

5) ([http://sofar.unipi.it/index\\_file/Social\\_Farming\\_in\\_the\\_Netherlands.pdf](http://sofar.unipi.it/index_file/Social_Farming_in_the_Netherlands.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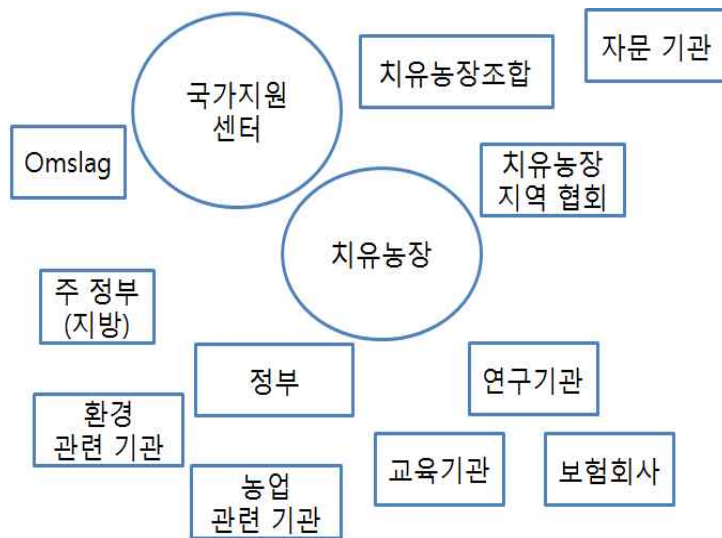
### 2.2.3. 네덜란드 치유농장의 주요 활동

네덜란드 치유농장의 주요 활동은 주간보호(Daycare) 서비스, 가축(돼지, 소, 닭, 양, 염소 등) 돌봄 등의 농업활동, 원예 활동, 산림 가꾸기 등이 있다. 주로 치유농장의 농업활동 분야에 따라 제공이 되고 있다. 낮 시간 동안의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몇몇 치유농장에서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거나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장기프로그램을 추진기도 한다(Elings and Hassink 2006).

### 2.3. 네덜란드 치유농업 관련 조직 및 정책

네덜란드에는 치유농장을 위하여 여러 조직과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있다. 관련 조직으로는 농업활동의 실제적인 제공자인 농가뿐만 아니라 사회요법전문가, 지역 정부, 복지관련 조직, 정책입안자, 보험 기관 등이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네덜란드 치유농업 관련 조직



자료: ([http://sofar.unipi.it/index\\_file/Social\\_Farming\\_in\\_the\\_Netherlands.pdf](http://sofar.unipi.it/index_file/Social_Farming_in_the_Netherlands.pdf)).

네덜란드의 거의 모든 지역에 지역 단위의 치유농장 조직이 있으며, 이러한 조직은 정보 공유를 위한 회의나 워크숍을 주최하기도 한다. 치유농장 간에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조언을 받기도 한다. 일부 지역 조직에서는 치유

---

농업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도 하며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제도(Quality System)를 도입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의료 서비스 관련 기관과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치유 농업활동에 적절한 비용이 지불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치유농가협회(Association of Green Care Farmers)의 경우 네덜란드의 치유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된 조직이다. 협회에는 약 80개의 농가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한 농가는 “건강을 위한 영농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협회는 농업, 원예, 축산, 시설원예, 유기농업 등의 분야의 농가 지원을 위한 네덜란드 농업 및 원예 조직(Dutch Organization of Agriculture and Horticulture)<sup>6)</sup> 안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지원센터(National Support Center)<sup>7)</sup>는 1999년에 치유농업 증진과 치유농장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건강복지운동부(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sup>8)</sup>와 농림자원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sup>9)</sup>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설립되었다. 국가지원센터는 주로 정부, 치유농업활동 이용자 조직, 사회복지사 등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한 치유농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유농장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Omslag<sup>10)</sup>은 농업, 치유, 공예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기관으로 농업 분야의 사회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과 치유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Omslag은 치유농업과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촌에서의 자연 친화적 건축 및 공예활동을 통한 치유농업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치유농업과 관련하여 국가적·지역적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수립하였다. 특히 치유농업을 위하여 건강복지운동부, 농림자원식품부의 각 조직이 관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지원센터와 각 지역의 조직, 치유기관조합 등에서 치유농업과 관련한 정책수립을 추진 중이다(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2).

각 조직의 역할을 살펴보면 건강복지운동부의 경우, 치유농업에 대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림자원식품부의 경우 치유농업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

6) (<http://www.lto.nl/english>).

7) (<http://landbouwzorg.nl/>).

8) (<https://www.government.nl/ministries/ministry-of-health-welfare-and-sport>).

9) 현재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로 통합되었음.

(<https://www.government.nl/ministries/ministry-of-economic-affairs>).

10) (<http://www.omslag.nl/index.html>).

있다. 또한 국가지원센터의 경우 치유농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제도(Quality System)를 개발하여 정부부처, 치유농장협회, 치유농장주의 질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4년 11월부터 질적 기준을 충족한 치유농장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품질보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치유농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각의 정책들을 수립하며, 그 내용과 추진방법은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health-care)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치유농장주협회와 농장지역집단 등을 운영하여 치유농장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는 1995년부터 장기 돌봄 비용을 위한 통합 건강보험제도(AWBZ)<sup>11)</sup>를 운영하고 있는데, 치유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는 AWBZ 인증을 취득한 기관에 의해 제공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Hassink et al. 2014). 농가는 공인된 복지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 예산(PGB)<sup>12)</sup>을 통해 지원된다. 돌봄 농가들은 “돌봄조직품질법(Care Institutions Quality Act)”에 따라 서비스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건강안전법(Health and Safety Act)”에 따라 위해성 평가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점을 마치면 해당 농가는 인증 표시를 획득하여 그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현재 품질인증을 획득한 치유농장은 700개 이상이다(임송수 외 2017).

### 3. 네덜란드 치유농업의 사례

#### 3.1. 중독자 치료를 치유농업 사례

노바팜(Novafarm)은 1999년 노르트 브라반트(Noord Brabant) 주(州)<sup>13)</sup>의 한 돌봄기관인 노바딕-켄트론(Novadic-Kentron)의 직원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이 치유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하여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기관은 중독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발견하였

11) 예외적 의료비용에 관한 일반법(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 AWBZ).

12) PGB는 건강보험제도 아래 정신질환자, 노인, 문체 청소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는 치유농업의 이용자들에게 직접 예산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고유의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예산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직접 치유농장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음.

13) 노르트브라반트 주는 네덜란드의 남부에 위치한 주로 남쪽으로 벨기에와 접하고 있는 지역임.



---

고, 이러한 계기로 증독자들의 사회화와 사회복지에 대한 활동을 제공하게 되었다.

노바팜은 지역의 약 20여개의 농장과 협력 하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노바팜의 매니저가 이용자 그룹을 모집하고 각각의 농장과 이용자를 연결해주면 각 농장에서 대상자에 맞는 농업활동을 조직하였다. 각 농장주는 이용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일자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노바팜은 당시 건강복지부와 지역 정부산하 농업국의 지원을 받았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 노바팜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노바팜은 현재까지 지역 농장과 협력을 통해 발전한 치유농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Hassink *et al.* 2015: 55-56).

## 3.2. 청소년을 위한 치유농업 사례

### 3.2.1. 오버레이셀(Overijssel) 주(州)<sup>14</sup>의 청소년 돌봄 농장(Care Farms)

오버레이셀 주의 청소년 돌봄 이니셔티브는 2002년 지역 정부의 농업혁신 과정 속에서 수립되었으며 주 정부 청소년과와 농업과의 지원을 받았다. 본 프로그램은 치유농업을 통한 청소년들의 긍정적 효과 경험과 농가의 부가적인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파일럿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버레이셀 주의 농업 기관의 직원이 프로젝트 리더로 참가하였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젝트가 청소년 돌봄 기관이 아닌 농업기관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기대 이상으로 청소년들이 이러한 치유농장에 잘 적응하였으며, 청소년 이용자, 부모, 농가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이 나타났다.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청소년 돌봄 농장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며, 2010년까지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40개의 농장에서 농업활동에 참여하였다. 청소년 돌봄 농장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7~18세이며, 방과 후나 주말에 농장주와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청소년 이용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활동은 동물 돌보기, 말 타기, 채소 가꾸기, 가꾼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주로 한 농장에서는 한번에 3~5명의 이용자를 받고 있는데, 이는 집안의 환경이 어렵거나 불우하여 부모로부터 정서적 안정을 갖기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의 청소년 그룹과 그들을 돌보고 안내하는

---

14) 네덜란드 동부에 위치한 주로 동쪽으로 독일과 접하고 있는 주임.

농장주와 농장주 가족과의 소통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Hassink *et al.* 2015: 53-54).

### 3.2.2. 림뷔르흐(Limburg) 주(州)<sup>15)</sup> 청소년 돌봄 농장

림뷔르흐 주의 청소년 돌봄농장은 주정부 청소년과에 의해 설립되었다. 또한 건강 복지운동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며, 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중퇴한 청소년들에게 농업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4시간 함께 지내면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함께 농장의 일에 참여시키고자 하였으나, 사업 초기에는 학교에서 중퇴한 청소년들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들의 사생활을 제한할 수도 있는 24시간 돌봄 시스템 운영이 어려웠다. 또한 프로젝트 농장의 리더가 청소년 부문에 대한 경험과 배경이 부족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례는 성공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례이다. 돌봄 농장의 운영 주체와 이용자 간의 상호이해가 부족하였으며, 농업활동과 청소년 교육 활동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례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프로그램 관리 체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농업활동 뿐만 아니라 교육형, 치유형, 사회적 재활 유형에 맞는 협력기관과 담당자의 선정과 협력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Hassink *et al.* 2015: 54-55).

### 3.3. 도시농업을 활용한 치유농업 사례

네덜란드의 경우 90%이상의 인구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1970년대부터 네덜란드의 도시농업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도시농업은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네덜란드에는 350여 개 이상의 도시농장(city farms)이 존재하고 있으며 연간 1,500만 이상의 방문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도시농장의 유형은 작은 규모의 텃밭에서부터 큰 단지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동식물과의 접촉하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농장의 방문자들은 도시농장이 안전한 장소이며, 접근성으로 인하여 방문이 자유롭고 이웃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은 도시농장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활력을 얻고 있으며, 정신적·심리적 혹은 육체적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가

15) 림뷔르흐 주는 네덜란드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음.

---

깎고 안전한 일자리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도시농장은 여러 주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 먹이사슬과 자연계를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소가 되고 있으며, 도시농장 방문자들에게는 자연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강한 유대감을 갖게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도시농장 중 25%가 의료기관에 속해져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농장은 지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장들이 농업 행정 체계로 인하여 예산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부문이다. 최근 네덜란드의 도시농업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에서 노인, 장애우를 위한 치유 기능을 포함하는 전체 도시인구를 위한 다기능적인 녹색 센터로 변화하고 있다(Elings and Hassink 2006: 173-174).

## 4. 시사점

### 4.1. 네덜란드 치유농업의 도전과제

네덜란드는 치유농업의 선두주자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 농촌과 도시지역 연결
- 치유농장의 네트워크 확장
- 치유농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 개발
-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치유농장에 대한 연구 부족
- 치유를 넘어 예방적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치유농장 개발
- 농업, 치유,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결합하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

네덜란드의 치유농장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치유농장은 농촌에 위치하고 있으나, 치유농업의 이용자들은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의 이용자와 도시 주위의 농촌에 있는 치유농장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등을 활용하여 도시 지역에서도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치유농장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적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치유농장은 국민건강보험(AWBZ)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AWBZ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관에 한하여 변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유농장들은 국민건강보험 승인을 얻은 기관과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 이용자들의 개인예산(PGB)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 예산프로그램의 도입 이후, 직접적인 체결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치유농업활동 이용의 대가는 치유농장과 이용자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치유농장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지원센터 등 조직을 통하여 치유농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치유농장에 대한 평가와 연구 등이 부족하여 치유농장과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는 취약한 편이다. 치유농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와 치유농업의 여러 형태의 활동에 따른 각각의 대상자들의 치유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등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의 발전은 농촌 지역을 새롭게 하고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농촌은 생산 기능에서 오락(recreation) 기능으로 점차 그 기능이 변화할 것이다. 지역의 식량 생산과 더불어 치유, 자연경관 보전,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을 결합하는 형태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의 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치유와 더불어 교육, 레크리에이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농장모델로의 발전과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 4.2. 우리나라 치유농업에 주는 시사점

최근 국내에서도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농업을 중심으로 치유적 활동을 제공하는 사례는 아직 별로 없으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나 지원 방안도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개별 농장에서 치유 관련 자격 보유자 증을 중심으로 관련 활동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현황과 실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의 발전 현황과 도전과제는 우리나라 치유농업에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 4.2.1. 치유농업 추진체계 구축

네덜란드의 경우, 치유농업을 위하여 여러 조직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건강복지운동부와 농림자원식품부 등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주정부와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관련기관, 복지관련 기관, 고용관련기관, 의료서비스관련기관이 포함되어

---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병원, 복지기관, 보험회사 등 민간부문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공공부문에서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부처 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데, 먼저 어떠한 부처의 주관으로 추진체계가 구축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여야 하며, 다른 부처들이 치유농업의 목적별, 유형별로 나누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바와 같이 네덜란드의 경우, “돌봄조직품질법(Care Institutions Quality Act)”에 따라 서비스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법 체계를 기반으로 치유농업 서비스를 보증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4.2.2.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공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원예치료 중심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치유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에 맞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농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필요하다. 앞서 네덜란드 치유농업의 도전과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치유농업의 여러 형태의 활동에 따른 각각의 대상자들의 치유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가 치유농장에 보급되어 농장의 소득 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치유농업 이용자들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여 이용자 본인의 수요에 맞는 치유농장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와 네트워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칭)치유농업정보센터’ 등의 기관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센터를 통하여 각 농촌 지역 실정에 맞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맞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하여 이용자들에게는 본인에게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용자 본인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치유농업의 수요와 공급에 맞는 매칭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 4.2.3. 도시농업 활용

우리나라 또한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자연과의 접촉 기회 증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의 이유로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근교에서 농업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이용 외 정부차원에서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치유농업의 주요 대상자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도시농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앞서 언급된 네덜란드의 경우, 접근성이 좋은 도시농장을 활용한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 정부에서 지원을 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도시농업의 최대 장점인 접근성을 고려한 지원이 추진될 수 있다. 먼저, 도시농업의 최대 대상자인 아동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동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하고 안전한 곳은 학교이다. 초등학교 운동장의 한 칸이나 학교 옥상 등에 도시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선정하거나 혹은 “학교농장도우미(가칭)” 등을 채용하여 학교 내 도시농장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들에게는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반대로 지역 내의 경로당이나 노인문화시설에 도시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아이들은 학교에서 쉽게 농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노인들 역시 아이들의 활동에 함께 하며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민들과의 공동체 및 소속감 형성으로 아이들과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마치며

치유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일환으로 새로운 서비스 이용자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실적인 지원이 부족하며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의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부만이 아닌 비농업 분야의 민간부문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치유농업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 역시 국가의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어

---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농촌과 도시지역의 서비스 이용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업활동이라는 특성상 공급지는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치유농장을 방문하는데 있어 이용자들이 교통편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Roest *et al.* 2010).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나 운수업체에서 농촌 등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 및 체육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교통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공헌활동을 치유농업을 위한 접근성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혹은 지역 단위에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비농업분야의 민간부문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미. 2014. “치유농업을 통한 6차 산업화 공간확장전략”. 2014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세미나 발표자료.
- 김경미·문지혜·정순진·이상미. 2013. “한국 치유농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4):909-936
- 임송수·김승애. 2017. “유럽의 사회적 농업 개관과 이탈리아의 사례”. 세계농업 11월 호 게재 예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i Iacovo, F. and O'Connor, D. (Eds).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Arsia(Agenzia Regionale per lo Sviluppo e l'Innovazione nel settore Agricolo-forestale).
-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2.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 Social Farming: Green Care and Social and Health Policies. Brussels, 12 December 2012.
- Jan Hassink, John Grin and Willem Hulsink. 2015. “New Practice of Farm-based Community-oriented Social Care Service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41-1, 49-63.
- \_\_\_\_\_. 2012. “Care farms in the Netherlands: An underexplored example of multifunctional agriculture-toward and Empirically Grounded, Organization-Theory-Based Typology. *Rural Sociology*. DOI:10.1111/j.1549-0831-2012-00089.x
- \_\_\_\_\_. 2014. “Farming with Care: The Evolution of Care Farming in the Netherlands.” *NJAS-Wageningen Journal of Life Sciences* 68: 1-11.
- Jan Hassink, Ch. Zwartbol, H.J. Agricoola, M. Elings and J.T.N.M. Thissen. 2007. “Current Status and Potential of Care Farms in the Netherlands”. *NJAS* 55-1: 21-36.
- Marjolein Elings, Jan Hassink. 2006. “Farming for Health in the Netherlands”. *Farming for Health*, 163-179.
- Roesta, Aïde E., Oostingb, Simon J., Reina, T. Ferwerda van Zonneveldc and Flinterman, J. Francisca Caron. 2010. “Regional platforms for green care farming in the Netherlands”. 9th European IFSA Symposium.
- Sempik, J. , Hine, R. and Wilcox, D. 2010 (Eds) *Green Care: A conceptual framework*, COST Action 866. Loughborough: Centre for Child and FamilyResearch, Loughborough University.



---

## 전자문서

[http://sofar.unipi.it/index\\_file/Social\\_Farming\\_in\\_the\\_Netherlands.pdf](http://sofar.unipi.it/index_file/Social_Farming_in_the_Netherlands.pdf)

## 참고사이트

Omslag (<http://www.omslag.nl/index.html>)

네덜란드 농업 원예조직 홈 (<http://www.lto.nl/english>)

네덜란드 치유농업 국가지원센터 (<http://landbouwzorg.nl/>)

건강복지운동부 (<https://www.government.nl/ministries/ministry-of-health-welfare-and-sport>)

경제부 (<https://www.government.nl/ministries/ministry-of-economic-affairs>)